

‘女風’ 거센 바이오기업 여성 R&D 인력 절반 넘어

뉴스카페

바이오업계에 ‘여초(女超) 현상’이 뚜렷하다. 연구개발(R&D) 기간이 길고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속성 때문에 여성 인력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유전자 진단 전문기업 디엔에이링크는 전체 직원 62명 중 46명이 여성이다. 전체 인력에서 74.2%를 차지한다.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로메드는 전체 59명 중에서 32명이 여성이다. 비율로 따지면 54.2%로 절반이 넘는다.

R&D 인력만 보면 여초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셀트리온의 R&D 직원 352명 중 60.8%(214명)가 여성이다. 신약 개발 바이오기업인 제넥신은 전체 직원 123명 중 여성 비중이 51.2%에 달한다. 씨젠도 연구인력 56명 중 60.7%인 34명이 여성이다.

이중은 디엔에이링크 대표는

“바이오기업은 실험 등 정확성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 손기술이 중요하다”며 “여성 특유의 섬세함 외에도 남성에 비해 술담배를 덜하는 게 손기술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구인력에서 생명공학·약학 전공자 비중이 높은 것도 바이오업계에 여성 인력이 급증하는 배경 중 하나다. 이들 분야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 전공자가 많다. 출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메디포스트도 여성 직원 수가 절반이 넘는다. 총 172명에서 52.3%(90명)가 여성 직원이다. 이 회사는 경기 판교 분사에 전문강사가 여성 직원을 상대로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R&D가 핵심인 바이오기업에서는 성별보다 능력이 최우선 기준”이라며 “고학력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중은 디엔에이링크 대표는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피엘케이테크놀로지 첨단운전지원시스템(ADAS) 카메라 ‘옵티안’

보행자·차선 이탈 알려주는 사고방지 블랙박스

지난해 미국 로보틱스 챌린지(DRC)에서 우승한 ‘휴보’는 두 발로 걷는 국내 최초의 로봇이다. 장애물을 피하는 등 지형-지물을 스스로 인식해 행동한다. 촬영된 영상을 분석해 판단하는 높은 수준의 ‘영상 인식 소프트웨어(SW)’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 이탈 경보장치 및 영상 블랙박스 업체인 피엘케이테크놀로지 박광일 대표는 휴보 개발팀의 일원이었다. 1993년부터 2년간 KAIST 휴보 개발팀에서 석사 과정을 밟은 박 대표는 2003년 국내 최초로 차선 이탈 경보장치를 개발했다. 차량이 중앙선이나 주변 차선을 넘어선다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다. 졸음운전, 차선 이탈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다. 2009년에는 보행자까지 인식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다. 현대자동차 예쿠스가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첫 제품 기능 오류 시련
박 대표는 1996년 현대차 연구소에 입사해 2001년 사내벤처를 설립했다. 1년여의 개발을 거쳐 최종

시연회를 열던 날, 오류가 발생했다. 장치가 특정 지역에서는 중앙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흑백 카메라가 문제였다. 흰색 차선과 검은색 아스팔트는 구별했지만 밝은 도로와 노란색 차선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컬러 영상 방식으로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데도 1년이 걸렸다.

중앙선·차선 자동으로 인식
졸음운전 사고 막아줘

현대차 예쿠스에 처음 적용
중 거냥한 저가 모델 개발

2003년 7월 시장에 첫 제품을 내놨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믿었던 현대차에서도 양산을 연기했다. 당장 팔 수 있는 다른 제품이 필요했다. 차량 이탈 경보장치에서 핵심 기술인 영상 인식 소프트웨어를 제거했다. 대신 그라피에 메모리 저장장치를 넣어 영상 블랙박스를 출시했다. 2005년



박광일 피엘케이테크놀로지 대표가 영상 블랙박스 및 차선 이탈 및 차량 인식 경보장치를 결합한 ‘옵티안’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지수 기자

가까스로 일본 수출을 시작했다. 박 대표는 “세계 어디에도 차선 이탈 경보장치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였다”며 “10여년간 연구한 영상 인식기술을 포기해야 했지만 시장이 원하는 제품에 대해 고민하는 게기가 됐다”고 말했다.

◆수출 길 열렸지만 ‘전량 회수’
2006년 현대차가 차선 이탈 경보장치를 채택하면서 상용화가 시작됐다. 2007년부터 프랑스 부품업체 발레오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본격적인 수출 길이 열렸다. 박 대표는 차선 인식뿐 아니라 앞차와 보행자를 인식하는 기술 등을 추가로 개발했다.

수출에 제동이 걸린 건 2009년. 독일 등 해외 바이어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이번엔 길가에 우거진 가로수의 그림자가 문제였다. 도로에 드리운 그림자와 차선, 차량 등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국내와 다른 해외 도로 상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탓이다. 전량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박 대표는 그때부터 해외와 비슷한 국내 도로를 찾아다녔다. 유럽과 비슷한 경기 고양·파주 간 2차체 발레오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본격적인 수출 길이 열렸다. 박 대표는 차선 인식뿐 아니라 앞차와 보행자를 인식하는 기술 등을 추가로 개발했다. 수출에 제동이 걸린 건 2009년.

독일 등 해외 바이어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이번엔 길가에 우거진 가로수의 그림자가 문제였다. 도로에 드리운 그림자와 차선, 차량 등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국내와 다른 해외 도로 상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탓이다. 전량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박 대표는 그때부터 해외와 비슷한 국내 도로를 찾아다녔다. 유럽과 비슷한 경기 고양·파주 간 2차체 발레오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본격적인 수출 길이 열렸다. 박 대표는 차선 인식뿐 아니라 앞차와 보행자를 인식하는 기술 등을 추가로 개발했다. 수출에 제동이 걸린 건 2009년.

◆현대차·BMW도 고객으로 확보
2014년 개선된 기술을 적용한 차량 이탈 및 차량 보행자 인식 경보장치를 내놨다. 영상 블랙박스를 결합한 제품 ‘옵티안’도 출시했다. 현대차에 이어 급속고속, 현대중공업도 거래처로 뿔었다. 해외에서는 올해 말 독일 BMW가 옵션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해 매출 142억원을 올렸다. 올해는 170억원이 목표다.

박 대표는 “이스라엘 모빌아이 등 해외 업체에 비해 기술력에서 뒤지지 않는다”며 “최대 시장인 중국을 겨냥해 가격을 낮춘 제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www.kwpower.co.kr

인공의 신뢰의 100년 기업

안정적 노후연금!

월 250만원 연금발전소!

99KW 설치기준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 ▶ 일시 :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PM 2시
- ▶ 장소 : 베스트웨스턴 국도호텔 3층 튜일룸
- ▶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64

예약접수 선착순 50명

신기후체제에 따른 유망사업

UN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

한국전력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사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빛나는 투자! 21세기 노후연금!

99KW 설치기준, 평균 250만원 월수익

- 태양광 발전 예상수익률 10% 이상
- 토지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토지 분할 등기 이전)

태양광발전소 분양

- 충북 제천시 잔여분 99KW 5기 / 150KW 1기
- 충남 금산군 1MW 4기
- 경북 성주군 2MW 1기
- 경북 영천시 3MW 1기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

안정성 :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 한국전력과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보장

수익성 : 투자금 대비 어떠한 금융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익률

- 25년 모듈 효율 보증 (30년 운영)

상시 방문 상담 가능

1644-4192

010-5110-5660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면허(제 대구-00973호)

KYUNGWONPOWER

경원파워

대구시 수성구 회랑로 164(만촌동 1331-8)

키위의 재발견 ... “변비·혈당감소 효과”

변비약 성분과 효능 동일
심포지엄서 첫 과학적 증명

“키위는 생약제에 버금가는 변비 치료 효과뿐 아니라 혈당 감소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뉴질랜드 북섬의 항구도시 타우랑가에서 열린 ‘제1회 키위 효능연구 국제 심포지엄’. 한국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16개국 의사와 영양학자 200여명의 시선이 키위의 과학적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에 쏠렸다. 뉴질랜드 메시대 산하 리벳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단일 과일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첫 국제 심포지엄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리처드 기어리 뉴질랜드 오타고대 교수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위가 변비약의 핵심 성분인 실리움과 같은 효능을 가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우음 삼성서울병원 외과교수는 “실리움은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생약제”라며 “실리움의 효과를 과일이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준먼로 뉴질랜드 플랜트앤드푸드 연구소 박사는 “전체 식사에서



잭 헨리 플랜트앤드푸드 연구소 박사(가운데)가 키위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지현 기자

곡류 등의 탄수화물 섭취를 5분의 1 정도 줄이고 키위를 대신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키위의 혈당증 완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허양임 인제대부속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과학적 임상자료를 기반으로 과일의 질병 완화 효과에 접근한 점이 신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후원한 세계 최대 키위 생산업체인 제스프리는 매년 대규모 연구개발 투

자를 통해 키위의 과학적 효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매년 2000만 뉴질랜드달러(약 160억원)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제스프리는 전·현직 뉴질랜드 키위 생산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농업인 조합 형태의 기업이다. 전 세계 키위 생산의 30%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 해 매출이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제스프리는 고(高)당도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 키위를 고부가가치 과일로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당도의 친환경 신제품 개발에 신약 개발에 버금가는 15년을 투자한다.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과학적 효능 입증에 주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스프리는 앞으로 키위의 변비 개선 효과 등에 관한 연구를 이탈리아, 일본 등지에서 추가로 한 뒤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기능성 과일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베로니크 마렌티어 제스프리 헬스마케팅 총괄박사는 “키위가 건강에 미치는 효능을 소비자가 많이 알수록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우랑가=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중소·소상공인 의료비 지원
1인당 200만원 지급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6 희망드림

의료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4인 가구 기준 440만원) 미만인 협동조합·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다.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 또는 수술 중(예정)이어야 한다. 서류심

사와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명을 선발한다. 1인당 2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love.kbiz.or.kr)과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참조하면 된다.